

## 시론



이태동

- 현) 서강대학교 영문학과 명예교수/  
문학평론가
-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전무이사
-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솔벨로우 멜러머드 학회 회장

## 막말 패륜, 국민 의식도 황폐화 시킨다

지난 60년 동안 우리는 치열한 좌우 대결과 참혹한 6.25 전쟁의 폐허에서 근검한 절제와 불굴의 의지로 선진국으로 발돋움 해 왔다. 이제 한국은 지구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선진국이 됐다.” 그러나 아직 후진국 수준에 머물고 있는 한국정치가 지금까지 쌓아올린 모든 것을 무너뜨릴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 정치인들이 진영으로 나누어 별리는 갈등은 정당 정치의 필연적인 현상이지만, 지금 우리의 정치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진흙탕 싸움은 사회의 근본적인 윤리의식과 규범마저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정치인들은 사욕(私慾)이나 정파의 이익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지도자들과 주장하며, 스피노자처럼, 그들의 “정치적 참 목적은 자유의 실현이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일부 집권당 정치인들은 그들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 민주주의의 요체인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급기야 사회지도자급에 속하는 법률가마저 그들

과 부화뇌동(附和雷同)해서 인간의 예의마저 저버리는 폐륜적인 막말을 쏟아내어 국민을 절망 시키고 있다.

불미스럽게 결단적 선택을 한 박원순 前 서울시장 측 법률대리인 정철승(51)변호사가 ‘언론 재갈법’인 ‘언론 중재법’에 관해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한 원로 철학자 김형석(101) 연세대 명예교수에게 ‘이래서 오래 사는 것이 위험하다는 옛말이 생겨난 것’이라고 폐륜에 가까운 말을 했다. ‘어째서 지난 100년 동안 멸절한 정신으로 안 하던 짓을 정신이 탁해진 후에 시작하는 것인지, 노화현상이라면 딱한 일’이라고 말하며 모욕적인 표현으로 연민의 정을 나타냈다.

그는 엄격한 사실에 입각해서 논리적으로 변론을 하는 법률가이면서 허위적인 말도 했다. 정변호사는 “김 교수가 이승만 정권 때부터 60여 년간 반(反)민주주의를 비판한 적이 없었다.”라고 했다. 그러나 실향민인 김 교수는 이북에서 경험한 김일성 독재 체제에 대해 기회 있을 때마다 비판해 왔을 뿐만 아니라, 4·19 혁명 때는 연세대 교수 시위를 주동하기도 했다.

더 나아가 정 변호사는 ‘적정 수명’을 “요즘 80세 정도가 한도선이 아닐까?” 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이것은 노무현 시대의 정동영 의

원이 “60세 이상은 투표하지 않아도 된다.” “60대가 되면 뇌세포가 변해 다른 인격체가 된다.”라고 해서 논란을 일으켰던 발언과 일치한다. 자신은 늙지 않을 것처럼 101세 노인을 폄훼하는 발언을 했지만, 생명을 물체로만 보는 마르크스적인 유물론적인 유물론에 경도돼 노인의 정신세계를 파악하지 못했다. 물론 나이테의 연륜(年輪)이 쌓이면 인간은 기억력은 약해진다. 그러나 그 동안 쌓은 경험으로 이해력이 좋아져 더욱 지혜로운 판단을 내리는 경우도 있다. 괴테는 81세에 그 위대한 작품 <파우스트>를 완성했다.

노인의 주름살은 겉으로 나타나 보이는 것처럼 햇빛 흉터가 아니다. 그것은 거친 세상과 싸워 이긴 훈장이다. 인간이 생명이 남아 있을 때 까지 일하고 움직이는 것은 그리고 그것은 인간의 존엄을 최후의 순간까지 지키기 위한 인간의 위대한 노력이다. 연민의 시선을 보내야만 하는 대상은 잔인한 시간의 힘에 복종해서 좌절하거나 절망해서 무기력함에 빠지거나 움직이지 않은 사람이지만, 깨어있는 의식을 갖고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죽음에 종속시키기에는 너무나 고귀한 두뇌의 자유를 지니고 있다. 인간은 삶보다도 고귀하며, 삶에 종속시키기에는 너무나 고귀한 마음 속에 경건함을 지니고 있다.”라고 토마스 만은 말했다.

최근 정치관의 언어폭력 행위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국회의장에게 한 김승원 여당 초선 의원이 6선 국회의장에게 사용한 ‘GSGG’라는 표현이 ‘개XX’라는 뜻임은 쉽게 알 수 있다. 그리고 문대통령 복심으로 알려진 윤건영 초선의원은 문재인 정권에서 참모총장을 지낸 장성들이 윤석열 前 총장 선거캠프에 합류하자 “별 값이 X값이 됐다.”라고 비친한 막말로 비난했다.

우리가 “말이 행동이다.”라는 비트겐슈타인의 말을 기억하면, 문제의 심각성은 무서울 만큼 끔찍하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 지도자들이 권력의 힘으로 바른 말을 봉쇄하고 폭력에 가까운 막말을 쏟아 놓은 것이 무비판적인 일반 국민은 물론 청소년들의 의식 세계를 지배해서 황폐화시키고 있다. 정철승 변호사는

“하루 사이에 팔로어만 300명 이상 늘었다.”고 자랑하고 있고, ‘김승원 효과’는 욕설이 금지된 댓글창과 게시판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바야흐로 동방예의지국(東方禮儀之國)이 천하의 욕설 공화국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정철승 변호사와 김승원, 윤건영 초선의원 같은 젊은 지도자들이 계속 이렇게 범위에 있는 윤리의식을 파괴하는 정치를 계속하게 되면, 한국은 다시금 후진국의 나라로 추락하게 될 것이다. 품위 있는 말을 하는 품위 있는 정치 지도자가 한국에서는 결코 나타날 수 없단 말인가. “케네디 대통령이 노력했던 것은 정치를 명예로운 직업으로 하려는 것이었다.”는 말이 기억에 새로운 요즘이다.